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강희원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21/영어교육과
파견시기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6월 23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보고서를 쓰기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21학번 영어교육과 강희원입니다. 영어 실력 늘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경험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교환학생을 지원하게되었는데, 여러 측면에서 느꼈던 점을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사람들에 관하여

-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환학생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 도와주겠지"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구하거나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성인인데 본인이 다 감당해야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기에. 물론 누군가가 찢찢매고 있을 때 도와주는 착한 친구들도 있지만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가 날 도와주겠지'라고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기 쉽기때문에, 이 점들이 처음에는 힘들어도 자신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저는 처음에 '아시아권 학생이 별로 없으니까 다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아무도 신경 안쓰고 모두 자기 할 일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매우 착하게 대응해줍니다. 오히려 가끔씩은 과잉친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다시 보게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색하게 쳐다보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약간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잘 도와주다가 점차 접점이 없으면 어색해지는 느낌과 같이? 그래서 처음엔 모두 가면쓴 것 처럼 대하는 느낌이라 외국인과 친구맺기는 어렵겠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두번째 학기를 지내면서 외국인 친구와도 친해질 수 있어, 편견이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외국인과 친해지고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말도 걸고, 만남의 횟수를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미국인과 친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속도도 따라잡기 어렵고 소통하는데 끼어드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신이 말이 능숙하지 않아도, 기다려주고, 친해질 수 있는 미국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주로 외국인들은 international 친구들이예요. 이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믿고 UCM 에 지원해도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어떤 외국인 친구를 보든 "Hi"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그것보다 "What's up?", "How's it going?", "How are you"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안부식으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하는 게 일반적이다.(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오늘 하루는 ~~~ 이랬어 식으로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면 당황할지도) 물론 아주 가까운 연인 혹은 친구라면 오늘 하루의 일들을 주저리 털어놓기도 합니다.
- 나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들이 정말 careful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나오는 사람이라 마주치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예상치못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나오는 사람과 마주쳐서 내가 깜짝 놀라거나, 사람 사이를 지나가려는데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을 것 같은 상황 등등 이런 사소한 경우에 모두가 "Sorry"를 말합니다. 이런거 보고 '예의 바르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뒷사람 올 때까지 문 잡아주는건 기본!

2. 학교생활

- 수업 첫 날에 당연히 한국에서와 다름없이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들고갔는데,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첫 날이라서 종이에 어떤 물음에 대한 답변을 써서 내라고 했던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날부터 옆사람한테 종이 빌렸던 기억이... 그니까 그냥 옛날식이라고 생각하고 공책 필수로 챙기기!
- 익히 알다시피 미국의 수업 분위기는 자유롭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친구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끔 어떤 반은 지극히 개인주의가 반영된 수업 분위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땐 모두가 굳어있는 것 같지만, 조용한 학생들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싶을 땐 적극적으로 말한다.
- 본인이 공부하면서 어렵거나, 도움을 받고싶을 땐 교수님의 office hour 에 맞춰서 교수님을 잘 찾아가면 됩니다. 교환학생이니까 교수님이 봐주는거? 없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어려운 수업이 있었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해서 교수님 방에 찾아가서 내가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수업시간에 기록하는게 시험에 도움이 되는지 자문을 구했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대안을 강구해주셨어요. 물론 다른 교수님께도 여쭙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교수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할건 본인 알아서 해라. 그래도 질문 적어서 물어보면, 페이퍼 쓰는데 도움달라하면, 가져온 outline 토대로 조언을 주십니다. 그런식으로 티를내니 수업시간에도 괜히 쉬운거는 나에게 시키시는 교수님도 있기도 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교수님께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며 열심히 한다면, 교수님께서 F는 주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 첫 수업에서 앉는 자리가 거의 종강까지 갑니다. 물론 바뀌도 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첫 수업에서 앉았던 자리대로 앉아요. 그래서 첫 수업에서는 남들보다 일찍가서 앞자리를 선점하는걸 추천드립니다. Communication 기반 수업이라면 두번째줄 자리정도 중간쯤에 앉아서 앞뒤로 말할 사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 처음에는 수업이 너무 빠르고 어려워서,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서, 녹음하고 집에서 듣는 날이 있었어요(물론 다는 못들음... 하나 알아듣는데도 오래걸려서) 그렇게 하면 두 번 일하는 격이니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처음엔 어려우니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나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듣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00 대 레벨이 제일 쉽고.. 천단위 숫자가 바뀔수록 어려운 수업이에요. 어떤 수업이든 과제는 많은 것 같으니 그냥 과제라도 열심히 하시면 성적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3. 음식

- 미국 음식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매번 샌드위치, 파스타, 피자가 기본인 것 같고 가끔 멕시칸, 타이, 베트남, 중국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한식을 좋아하시면 불럭국, 짜먹는 고추장 가져가시는거 추천합니다. 쌀은 그냥 월마트에서 쌀포대 사서 직접 밥 해먹었는데 어렵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4. 룸메이트

- 생각보다 룸메이트들과 친해지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친절하고 베푸는걸 좋아하는 룸메가 아닌이상.. 보통은 그냥 마주쳤을 때 Hi 하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나는 기숙사 희망 조건을 선택할 때, 조용한 기숙사를 원한다고 해서 룸메들이 소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엄청 친해진 사람들도 있긴한데, 부러운 면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숙사에서는 편히 쉬고싶을 때 쉬고, 낮잠자고싶을 때 조용히 자고, 공부하고싶을 때 공부하고 싶었기에 조용한 환경이 저에겐 더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룸메도 있습니다. 어느정도이면 괜찮은데 심할 경우 계속해서 컴플레인 걸어보세요. 잘 안되지만 방 바꿔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방 한 번 옮겼구요.

5. 이 외에

- 미국에 다녀온 후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시야가 넓어질까 의아했었는데 갔다오면 정말 여러 방면으로 몸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파티하는 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도 미국에 갔을 때 매주 일주일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파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파티를 하면 공간에 제약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매번 같은 장소에서 놀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놀다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가끔씩 파티 테마를 정하기도 했어요. 소소할 때는 "오늘 체크 셔츠가 파티 룩이야", 혹은 "여름 휴가 나온 것 처럼 입고오자"라고 하거나 할로윈, 발렌타인데이 등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파티를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풍선도 불고, 디저트도 모두 테마에 맞춰진 걸로 사오고 등등 우리는 벽에 쓸 수 있는 크레용을 사용해서 서로의 국기와 이름을 남기기도 했던 경험이 있네요.
- 생각보다 순수하게 놀아요. 물론 수위가 높은 게임을 할 때도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다면 "Keep it down"이라며 수위좀 낮춰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웬만하면 알아들어서.. 실제로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화려한 원피스 입고 하는 파티는 prom 인데, 저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선 아마 안열렸던 것 같고... 보통 대학교 전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한다고 하네요.
- 일단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남의 신경을 덜 쓰게될까. 일단 모두가 후드티처럼 편안한 복장을 입어서 안꾸며도 돼서 너무 편안하고, 오히려 꾸미면 남들이 "I like your

outfit!"라면서 칭찬하기도 해요. 저는 옷을 많이 가져갔는데 별로 꾸밀 일이 없어서 후회했어서.. 옷은 알뜰한 정도로만 가져가시는거 추천드립니다.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로 생각하고 가시면 낭패를 봅니다.. 모든걸 느긋하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마음이 편해요.
- 분리수거를 일체 하지 않아요. 액체, 고체, 상관 없이 모든 쓰레기를 한 쓰레기 통에 넣습니다. 심지어 병 안에 든 콜라나 음식물 쓰레기까지...

7. 단점

- 일단 시간이 너~~ 무 널널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있던 곳은 시골이었어서 혼자서 너무 심심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쉴 수 있고, 나에 대해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더 소중한게 느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시골학교인 대신 학교에서 하는 이벤트들이 많아서 직접 찾아서 친구들이랑 가곤 했는데, 이런것들도 다 소중한 추억거리예요.)
- 외로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방에 혼자 남겨지면 공허했던 적이 많아요. 이럴 땐 그냥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노는 거 추천합니다. 외국인이라고 내 맘을 이해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하지말고 작은거라도 고민을 털어놓고,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친구와 노는 게 아주 좋아요. 실제로 외국인 친구들과도 거의 깊은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은데 외국 친구들은 생각보다 강하고 긍정적인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 "너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의 긍정의 파워를 잔뜩 얻어갈 수 있어요
- 학교에 있는 헬스케어 센터같이 그런 기관을 가려면 일주일정도는 기다려야 검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8. 여행&이 외의 팁

- 종종 사람들이 친해진 한국 사람들이랑 미리 여행할 사람들을 만들고, 여행 계획을 짜는데, 최대한 나중에 마음 맞는 친구를 찾아서 계획하는 걸 추천해요. 한국인들끼리 소통하면 외국 사람들과 말하는 것보다 말이 더 잘통해서 다툼이 오히려 잘 일어납니다. 여행 계획을 짤 때 여행 스타일이 달라도 싸우기도 하니깐.. 그런걸 한번 서로 얘기해보고 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여행할 때 대마초에 중독된 사람, 흡리슴들이 꽤 많은 곳에는 가기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에 상당히 많아서 다른 교통수단을 타는걸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면 괜찮지만, 웬만하면 저녁 7, 8 시에는 집에 들어가고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 여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싶다면, 굳이 친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몇마디의 말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처음엔 다 호의적이어도 나중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어지는 건 똑같아요. 반대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두배로 더 노력하기! 그리고 나서 천천히 좋은 친구로 스며들도록 관계를 만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 역시 날 보며, 나를 위하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거리만 두는 사이로 생각할 수 있기에 내가 호의적으로 대한다면, 서로 점점 친해질거라고 믿어요.

- 외국인과 처음 만났을 때 특별히 팁이 있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필터 없이 그냥 뱉으라는 말을 해주고싶어요. 처음 교환학생을 갔을 때, 말하기를 많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계속 어법에 맞는 문장을 만들고 뱉으려다 보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반응하거나 대답하는 게 안되고, 모든 대화가 끝난 후에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다보니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에는 그냥 말을 뱉어야지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다 알아듣기에. 주변 사람들은 잘하는데 저는 왜 그정도가 아닐까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들도 그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나의 속도대로 말하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외국인 친구들 입장에서 처음 접하고, 받기 어려운 한국 전통 선물들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들어 젓가락이나... 한국 전통 물품들. 그리고 한글 스티커를 가져가서 외국 친구들 이름을 한글 스티커로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이썬 뭐 이런것두 좋은 것 같아요
- 시골학교를 갈까말까 갈팡질팡하다면 학교에 International student 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고싶어요. 대개 국제 학생의 비율이 많을 수록 더 잘 챙겨주는 것 같다. 시골학교는 지루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연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화창한 날씨를 볼 수 있고, 매일 기분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있었던 동네의 다운타운 카페, 어떤 서점 비디오가게 등등은 일찍 문을 닫았어요. 카페는 2시 다른 것들은 5시? 그래서 거의 못갔던 것 같아요. 이러한 환경이어서 더 지루했던 것 같기도하고.. 웬만하면 좀 볼게 많은 다운타운이 학교 근처에 있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교환학생 준비하다가 궁금한거 있으시면 kkhw06070@naver.com으로 메일주세요 !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장유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1 정보보안공학과
파견시기	2022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6월 11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내용

저는 2022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교환학생을 갔다 왔습니다. 1학기 15학점 2학기 12학점으로 총 27학점을 들었습니다. 전공의 경우 예상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용어, 그리고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다른 명칭들이 처음엔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교양과목의 경우 완전 처음 듣는 단어들과 처음 배우는 영역들이 많다 보니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업 또한 바로바로 따라가는 대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riminal justice**를 들었는데,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치관 차이 그리고 법의 차이와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교적 알아듣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역사 수업 또한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미국의 깊은 역사를 배울 수 있으며, 교수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미국 역사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역사에 관한 한국자료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만약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한국어 자료를 찾아 따로 공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의 수업보다는 저학년의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조별과제가 많고 수업의 내용이 깊어 수업을 따라가고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종종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학년 수업의 경우 비교적 라이트한 내용과 쉬운 과제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수업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적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을 또 들을 확률이 높아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다면 저학년의 수업보다는 고학년의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체적으로 교수님들이 굉장히 잘 챙겨 주시며 허락만 받는다면 수업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어(PPT) 좋습니다. 성적의 경우 절대 평가이고, 교수님들이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 성적에 관해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됐습니다. 시험의 경우 교수님에 따라 다 다른데, OMR 카드를 직접 구매하라는 교수님과 제공해 주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OMR 카드의 경우 scantron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업 외적 부분으로는 미국 학교의 경우 한국 학교보다 교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로윈, 부활절, 크리스마스 와 각종 국제행사까지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많으니 학교 일정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아리가 굉장히 잘 활성화 되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학기에 국제학생 동아리와 클레이 클럽, 2학기에는 국제학생 동아리와 클라이밍 클럽을 참여했습니다. 국제학생 동아리의 경우 다른 국제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동아리이며 이 동아리에 참여하는게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국제학생 커뮤니티가 이 동아리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참여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좋았던 동아리는 클라이밍 클럽으로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클라이밍을 해봄으로써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국제학생 외에 친구들을 이 동아리에서 많이 사귀었기에 뜻깊은 동아리였습니다. 또한 실제 산에 가서 암벽등반을 했었는데 이 활동 또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체력증진으로도 좋았던 동아리입니다.

기숙사의 경우 저는 2인실을 사용하였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연락 중입니다. 현지인 룸메이트 덕에 현지 미국인들이 쓰는 다양한 줄임말들과 유행하는 프로그램 등 수업으로는 알 수 없는 미국 문화에 대해 접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미국인들은 정말 사람마다 각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는 만나는 사

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호모포비아들에게는 교환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장 저희 학교에서도 LGBTQ+들을 생각보다 많이 접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라는 말처럼 이런 분들을 존중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면 불의의 사고를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외로 인종차별은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챙겨주었기에 미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힘들었던 점으론 한국음식이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마을에서 한식집이 있기는 하였지만, 차 타고 가야했고, 아시아 식재료는 굉장히 비싸서 자주 사기 부담스러웠습니다. 매일 밀가루 음식만 먹다보니 속이 더부룩해 어느 순간부터는 한식위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동네 축제 행사 중, 클라이밍 클럽 활동 사진, 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사진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한다솔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영화영상전공
파견시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6월 2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aoo.gi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UCM은 매우 International friendly한 편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가 미주리의 작고 평화로운 시골 동네 Warrensburg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도 무척 여유롭고 친절했고, 걱정했던 인종차별 같은 것은 전혀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국제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와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어서 프랑스, 아이티, 일본, 중국, 스페인 등의 국제 학생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친해지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UCM에서 주로 Art 학부의 강의들을 수강했는데, Drawing 1, Painting 1, Ceramics 1/2, Intro Graphic Design & Illustration, Digital Premedia Fundamentals, Media Aesthetics, Musical Theatre Dance 와 같은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Drawing 수업은 큰 사이즈의 드로잉 패드와 연필 지우개, 목탄 등을 준비해야 했고, Painting 수업은 유화 물감과 린시드 오일, 감술, 붓, 캔버스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Ceramics 수업의 준비물은 10불 정도의 도구 세트와 락앤 락 통, 비닐봉지 정도로, 준비물 부담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흙이나 석고, 도자기 물감 등은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Ceramics 담당 교수이신 Natasha 교수님도 굉장히 좋으셔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Musical 수업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수업입니다. 뮤지컬 댄스를 배우는 것은 좋았지만, 꽤 많은 양의 춤을 한 번 보고 따라 추고 외워서 시험까지 보는 것이 곤욕이었고, 이론 시험도, 보고서 과제도, 발표와 티칭도, 팀 프로젝트도 있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못한 외국인에, 비전공자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몹시 버거웠습니다.

수업 외 학교 활동으로는, 23년 Spring semester에 ISO(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의 보드 멤버인 VP Operation 직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VP Operation 직책은 ISO 활동을 위해 장소를 예약하거나, 행사 flyer을 제작하는 등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것이 주된 업무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터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포지션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보드 멤버들에 비해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회의 때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었고, 빠른 회의 진행 때문에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저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UCM에서의 생활은 매우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도시처럼 볼 게 많거나 할 게 많지는 않은 곳이지만, 캠퍼스에는 다람쥐가 뛰어다니고,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리는 미주리 Warrensburg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행사도 가능하면 모두 참여하면서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현해리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환경조경학과
파견시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UCM)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7월 17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1. 위치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이하 UCM)는 Missouri주 Warrensburg에 위치해 있으며 공항은 캔자스시티 공항(MCI)을 이용합니다. 제가 22년 8월 캔자스시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엔 공항이 너무 낙후되어서 놀랐는데 23년 3월 신공항이 완공되어 교환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때는 세계에서 가장 최신식인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공항에서 학교로 바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습니다. 한국은 수도권,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지하철이 잘 되어있지만 미국은 동부와 서부에 지하철이 몰려 있고 중부 대부분 지역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특히 미주리는 텍사스 다음으로 농장이 많은 시골이라(미주리에서 왔다고 하면 너 완전 시골에서 왔구나? 소리를 미국에 있는 내내 듣게 됩니다) 캔자스시티, 세인트루이스처럼 대도시가 아니라면 시내버스타 트램 같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UCM 도착 후 첫 주 동안 진행되는 OT 때 워렌스버그에는 우버가 두대밖에 없다는 것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쯤 되니 학교에는 어떻게 가지?? 하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첫 주에는 OT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대관버스를 보내줍니다. 입학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메일이 엄청 올 텐데, 일정을 보내주면서 이 날자에 공항 근처 호텔에서 머물고(호텔 3개정도 리스트를 같이 첨부해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버스가 3개 호텔에 픽업을 갈 테니 호텔 예약하고 구글폼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종강하면 어떻게 공항을 가는지에 대해서는 6-전하는 말에서 이어 적겠습니다.

2. 학교시설

학교가 시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정말 할 게 없어서 학교 시설이 좋습니다. 대부분이 평지이며 장애인 편의 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마다 문 여는 버튼이 있고 휠체어 경사도가 완만한 각도로 잘 설계되어 있으며 화장실 번기는 센서 인식 물내림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건물은 Union과 Rec Center입니다. 이 두 건물에서 가장 많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Student Union은 말그대로 학생회관입니다. 유명한 체인으로는 Chick-fill-A, Taco Bell, Starbucks가 있고 Crush(햄버거, 부리또 등), 편의점, 그리고 스시롤을 파는 일식집(미국식)이 있습니다. 유니온 안에는 볼링장, 영화관, 큰 연회장, 수업을 하지 않는 빈 강의실 등이 있고 OT 역시 유니온에서 진행됩니다. 영화관은 무료이며 벽에 학기 중 영화 상영 일정을 붙여 줍니다. 볼링장은 유료이지만 무료행사도 자주 열려서 한학기 스케줄 캘린더(렉센터, 유니온 등에서 구할 수 있음)를 자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학교 건물마다 게시판에 행사 포스터가 붙어있으니 캘린더를 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니온 지하 Student Success center에서 무료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운영 외 시간에 프린트를 이용하려면 1층에 유료 프린터 기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Rec Center는 체육관입니다. Full name은 Student Recreation and Wellness Center(SRWC)이고 대부분 렉, 스투던=렉, 렉센터 라고 부릅니다. 실내 코트가 있어 농구, 배

드민턴, 배구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고 헬스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또한 클라이밍 암벽이 있어서 운영시간 동안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렉센터는 데스크에서 모바일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면 되고 데스크에서 폼롤러, 농구공, 배드민턴 라켓 등 운동기구를 빌릴 수 있습니다. 데스크에 있는 학생들은 엄청 친절해서 이거이거 있니? 빌릴 수 있니? 물어보면 당연하지~! 하고 잘 대답해주니 운동기구 괜히 사지 마시고 돈 아껴서 여행경비에 보태길 바랍니다. 렉센터에 아인슈타인 베이글이 있고 앞에 책상과 의자가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먹거나 팀프로젝트를 하기도 합니다.

3. 기숙사

기숙사는 Apartment와 Residence hall 두가지로 나뉩니다. 아파트형은 신입생이 들어갈 수 없고 대부분 고학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와 같은 유학생들은 아파트형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파트형과 레지던스홀의 차이는 Living Room, Kitchen의 유무입니다. 아파트형은 Bedroom에 거실과 주방까지 있어서 방 안에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홀은 Bedroom만 있는 한국과 비슷한 기숙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레지던스홀은 2인실인데, 옆방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구조라 총 4명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지던스홀에는 공용주방이 있어 냉장고에 물건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미니 냉장고를 빌려서 방 안에 넣고 사용합니다. 정말 웃긴 것은 아파트형과 레지던스홀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아파트형에 들어가고 싶어하며 신청은 선착순이니 기숙사 메일이 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학생들이 많이 가는 기숙사는 The Crossing(아파트형)이며 가장 신식으로 지어진 기숙사입니다. 크로싱 1층에는 스타벅스와 스피피자가 있어 편리합니다. 저는 신청을 늦게 해서 크로싱은 떨어지고 Foster/Knox(아파트형)에서 머물렀습니다. 크로싱은 자동으로 룸메이트가 배정되지만 포스터녹스는 룸메이트를 직접 구해와야 해서 교환학생 단독에서 구하거나 혼자 방을 쓰면 됩니다. 혼자 방을 쓰면 혼자 기숙사비를 내는 것이고 룸메이트를 구하면 기숙사비의 반을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숙사를 통틀어서 포스터녹스가 가장 저렴했고 크로싱 4인실보다 천달러 정도 저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씨엠의 기숙사는 크로싱을 제외한 모든 기숙사가 낡고 더러워서 포스터녹스 또한 시설이 좋은 편은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짐을 옮길 때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수압이 세고 욕조가 있어 샤워할 때 편합니다. 크로싱은 수압이 정말 약하고 방마다 구조가 조금씩 달라서 샤워부스가 정말 작은 방들이 있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스터 녹스는 도서관과 렉센터가 가깝고 바로 앞에 홍콩익스프레스라는 중국식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근방 음식점 중에 가장 저렴하고(학생할인 or 포장할인) 맛있습니다. 월마트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쪽 10분~20분 내려가면 Wendy's, Jimmy Johns, Chipotle, 써브웨이, 파파존스 30분 거리에 버거킹 맥도날드가 있고 월마트 반대 방향으로 5분 올라가면 도미노 피자과 보바티(버블티)파는 곳이 있습니다. 크로싱은 신식 기숙사라 주방에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가 있으나 포스터녹스는 없어서 전자레인지를 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전자레인지, 미니 냉장고 등 주방가전을 입주기간에 빌릴 수 있습니다. 기숙사마다 CA라는 기숙사 근로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면 너무나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저희와 같은 유학생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4. 식사

식사는 Dining Dollar, Meal plan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ning Dollar는 50달러 단위로 충전할 수 있고 학교안에 있는 식당이나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이닝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긁어도 되지만 다이닝 달러를 사용하면 텍스가 안 붙는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이닝 달러는 다음학기로 이월 가능합니다.

Meal plan은 쉽게 말하면 식권 같은 개념인데, 학교 식당 두 곳 Todd dining center, Elise dining center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레지던스홀에 사는 친구들은 요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밀플랜을 Ultimate으로 구매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무제한으로 해결하고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요리를 해먹기 때문에 보통 25개나 50개 정도를 구매하여 한학기동안 사용합니다. 밀플랜은 학기가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너무 많이 남아서 한달 내내 사용하고 친구 대신 찍어주고 해서 겨우 다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종강 전에 다 사용해도 되고 추가 구매가 가능하지만 최소 25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이닝 달러로 한끼씩 결제해서 먹

습니다. 다이닝 센터 전용 리유저블 박스(5달러)가 있으면 밀플랜을 포장해서 기숙사에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토드가 좀 더 신식 느낌이라 사람이 많고 앨리스는 어둡고 조용하지만 직원분들이 친절하고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이라 앨리스를 더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에는 앨리스에만 소프트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었는데 다음 학기에는 토드에도 소프트아이스크림 기계가 생겼습니다.

5. 수업

미국인 교수님 뿐만 아니라 인도계, 중국계 등 다양한 나라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공대에는 중국인, 한국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업은 누가 더 낫다 힘들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귀에 잘 들어오는 교수님이 있듯이 귀에 쑥쑥 들어오는 미국인 교수님이 있고 한 학기가 끝날 때 까지도 귀에서 다 뿜기는 미국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인도 교수님의 첫수업에서는 인도 발음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수업에 잘 따라가 좋은 학점을 받은 수업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평생을 미국식 영어만 배우고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영어 발음이 낯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미국의 장점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인 교수님 수업만 들을래! 하지 마시고 듣고 싶은 과목 다 듣고 오세요. 한국은 다문화 나라가 아니어서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교환학생은 상명대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수업시간에 조용하고 질문도 잘 하지 않는데, 미국은 수업시간에 질문이 활발하며 심지어는 교수님 말을 끊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절대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항상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시고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classmate**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누구든 기꺼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수업 도중 혹은 수업 끝나고 질문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수업 첫날 OT를 하며 5장 이상의 아주 자세한 **Syllabus**(수업계획서)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교수님 연락가능한 시간, 이메일 주소 등이 다 나와있습니다.

6. 전하는 말

상명대학교는 성적을 P/F로 매기기 때문에 학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가 매우 시골에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교 행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강 후 한달은 매일 행사가 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행사 빠지지 마시고 행사 하나하나가 다 한국에서는 체험할 수 없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영어 실력도 늘고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행사가 무료이고 가끔 **free pizza, pan cake, hot dog** 등등 음식을 나눠주는 데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미국 간 건데, 최대한 많은 행사에 참여해서 문화도 배우고 등록금 알차게 쓰길 바랍니다.

가을학기에는 땡스기빙, 봄학기에는 봄방학 그리고 종강 후 등 여행할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워렌스버그 다운타운에 기차역이 있어서 캔자스시티나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시카고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편도 기준 캔자스시티는 1시간반정도, 세인트루이스는 4시간, 시카고는 10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차 있는 친구가 있다면 공항에 태워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워렌스버그에서 공항까지의 왕복 가스비를 주거나 음식을 사주거나 친절을 베푼 친구에게 보답을 꼭 했습니다. 편도 기준 공항까지 차로 한시간반~두시간이라 부탁할 때 매우 미안하긴 했지만 그들도 우리가 외국인이고 공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friendship famil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가정과 매칭되어 한학기 동안 미국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공항에 태워다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제학생들이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FF에게 부탁해서 공항에 갔습니다. 만약에 정 차를 못 구하겠다고 하면 기차를 타고 캔자스시티에 간 후, 트램을 타고 공항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캐리어 한두개를 들고 여행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다른 지역 여행을 많이 다니길 추천하는데, 국내선이기 때문에 입국심사를 할 필요가 없고, 이미 미국 휴대폰 번호가 있고, 한국에서 미국을 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3, 4학년에 교환학생을 오게 되는데 언제 또 대학생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누리고, 경험하고 오길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허수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 영어권지역학 및 문화예술경영
파견시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7월 1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1. 교환학생 지원 동기

- 신입생일때부터 해외로 교환학생을 가보고 싶다는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은 자매대학교의 학생이라는 안정적인 소속감 아래 해외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2. 파견 지역/대학교 선정 이유

- 우선 영어지역학전공 학생으로써 영어를 사용하며 경험을 쌓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이 들어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교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1. 도시의 크기 및 주변 인프라 2. 전공 강의 유무입니다.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가 위치한 San Antonio는 텍사스주에 남부에 위치하여 멕시코와 밀접해 있으며 스페인, 독일과 미국 뿌리에서 생겨나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풍부한 역사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샌 안토니오 강이 도시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는 'River Walk'를 따라 역사, 상업, 문화 기관이 집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 이외의 시간에 문화생활이나 여행 등의 면에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자매대학교 리스트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저의 다전공인 문화예술경영 학점을 인정받을 만한 강의를 있는지 하나하나 서치한 뒤 이를 참고하여 University of the Incarnate Word가 저에게 가장 적절한 파견 대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3. 출국 전 준비과정

- 파견 최종 선발이 된 후 담당자님과 메일로 소통하며 파견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3월 초에 Application packet, 영문성적증명서, 여권, 잔액증명서, 어학성적표를 제출했고 4월 말에 자매대학교에서 파견이 최종 accept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빠른 비자 발급을 위해 실물 합격서류를 받기 전으로 메일로 DS-2019를 위한 SEVIS ID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면접을 예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 및 이용한 모든 서류들은 추후 입국심사를 위하여 꼭 2부씩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파견 전 자매대학교 국제처에서 메일이 매우 많이 옵니다. 수강신청, 도착 및 픽업 일정, 학번 및 이메일 등 중요한 정보이니 메일함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초에 수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학생의 경우엔 수강신청 홈페이지에서 듣고자 하는 강의를 Exchange student course request form을 작성해 프린트한 뒤 우리 학교 국제협력처 담당자분께 서명을 받은 뒤 스캔하여 다시 자매대학교에 메일을 보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 강의의 선수과목은 없는지, 비전공자가 들을 수 있는 강의인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매대학의 본교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이 국제학생보다 빠르고 그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고 싶거나 인기 있는 강의들은 잔여 수강 가능 인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시차때문에 바로 바로 일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점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출국 전 약 2번 정도 시간표를 변경하였는데, 이때는 별도의 Form 작성 필요없이 담당자에게 메일로 수업 추가 및 정정 요청하면 됩니다. 개강 시작 후에도 2주까지는 수강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visor와 meeting을 예약한 뒤 대면으로 바뀌어야하는 데 이 과정이 보다 까다롭습니다.

4. 출국 후 학교 생활

- 저는 8.10에 캠퍼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첫 날은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에 학생증 및 기숙사 열쇠를 받은 뒤 기숙사에 본격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첫 학기 머문 기숙사는 mcomb의 더블룸이었습니다. 맥콤은 방마다 옵션이 조금씩 다른데, 저의 방은 부엌이 있고 총 4개의 베드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맨 끝에 각각 화장실이 하나씩 있고, room a,b,c는 싱글룸이고 제가 생활한 room d만 더블룸이었습니다. 다른 친구의 방의 경우는 부엌 없이 더블룸 2개가 구성된 방에 생활하였습니다. 맥콤의 경우 미리 방마다 옵션이 다르다고 알려주긴 하지만 자기가 어떤 방에 선정될지는 입주하기 전까진 알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요리를 하지 않아서 부엌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라면이나 간단한 조리를 하였고, 우유, 요거트 보관을 위한 냉장고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정된 방의 룸메이트에 따라 전자레인지나 전기포트를 같이 공유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 개강 전 약 2주동안 국제 학생들을 위한 OT를 진행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티 투어를 가기도 하고 다같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거의 매일 같이 이른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되어 조금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다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모든 친구들과 친해지지 않더라도 ot기간에 얼굴 보고 지내니 학기 중에도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지내고 스몰토크도 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프리티셔츠를 주는 행사들이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잠옷으로 즐겨 입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할수록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데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공강 시간, 주말을 이용하여 다운타운에 자주 놀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샌안토니오는 강을 중심으로 다운타운이 형성되어있습니다. 리버워크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관광을 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낮과 밤이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여가시간에 친구들과 펠마켓에 자주 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쇼핑은 주로 노스스타몰에 갔고, 조금 멀고 비싸지만 한국의 아울렛과 비슷한 라칸테라도 있습니다. 다른 국제 학생들과 단체로 식스플래그라는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동은 우버를 이용하거나 학생이면 무료로 탈수 있는 via bus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차가 있는 현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습니다.

5. 학교생활 이외 (여행)

- 학기 중 holiday가 많아 여행도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공강이 여행하기에 좋습니다. 가을 학기에 큰 휴일은 thanks giving day와 fall break이 있습니다. 봄학기에는 spring break이 있습니다. 금공강+주말+휴일을 최대한 활용하면 열흘에 일주일 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는 thanks giving day에는 서부여행을, spring break에는 뉴멕시코 로드트립으로 스키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경우 주말을 활용하여 텍사스 내 달라스, 휴스턴을 짧게 다녀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1년 파견이었기 때문에 가을 학기 종강 후 약 한달의 겨울방학 동안 올랜도와 뉴욕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현진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의류학전공
파견시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Wisconsin - Stout (UWS)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 년 6 월 29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캠퍼스 주위 환경(타운 환경)

대중교통이 없는 작은 타운 동네입니다. 주민분들끼리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고, 동네 커뮤니티가 꽤나 형성되어있어서 동네 자체의 행사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파머스마켓, 폴리마켓, 퍼레이드 등등) 학교 근처에는 음식점들이랑 앤틱한 소품들을 파는 소품샵, 옷가게, 아트샵, 극장, 등등이 있고 월마트 있는 다운타운 쪽으로 조금 더 나가면 볼링장, 영화관, 대형마트, 중고샵, 헤어샵, 네일샵 등 웬만한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동네 거주하는 인종같은 경우에는 로컬 분들의 경우 백인종의 비율이 8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아시안, 히스패닉 분들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흑인의 경우에는 1% 미만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명 안팎으로 많은 편은 아이었던 것 같고 동네에 한인교회가 있어서 목사님 부부가 학교 기숙사로 픽업 오셔서 예배드리고 한식을 항상 만들어 놓으셔서 같이 저녁먹고 오기도 했었어요.

교통 및 공항

가장 가까운 공항이 있는 도시(오클레어)까지는 차로 30-40분 정도, 국제선이 있는 공항이 있는 도시(미네아폴리스)까지는 1시간 20분 정도 차로 소요됩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학교에 갈때는 **Groome transportation** 이라는 공항 셔틀을 이용했었고, 그게 학교로 바로가지는 않고 학교 근처 **INN**(호텔 같은 곳) 앞에 내려서 교환학생 담당자분의 차를 타고 이동했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는 3가지 종류의 셔틀버스가 토요일 저녁시간과 일요일 제외하고 운영되어서 월마트나 근처 돌아다니기에 아주 큰 불편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친구들과 친해진 후에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차를 타고 이동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 앞쪽에서 오클레어, 미네아폴리스 이 두 방향으로 출발하는 **megabus**가 하루에 1번 운행합니다:)

렌트카 대여같은 거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동네에서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는 승용차 하나 하루 10만원 안팎으로 있었고, 급한게 아니라면 오클레어에서 주로 대여하고 반납하면서 이용했습니다.

학업

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의류학과에는 교환학생이나 국제학생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신기해하면서 말도 걸어주고 교수님도 초반에 신경써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업 자체에 토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영어 공부에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집중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따라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의 비즈니스 시간 내에 상담 신청을 하거

나 끝나고 찾아간다면 정말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통은 교수님들 부를 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것 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걸 좋아하십니다

의류학과의 수업에는 기본적인 패션산업의 기초적인 지식부터 역사, 그리고 텍스타일, 봉제까지 상명대의 커리큘럼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별점이 있다면 훨씬 많은 자재들과, 기구들 그리고 체험활동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제가 들었던 수업 중 텍스타일 관련된 수업에서는 한국에서 이론으로만 들어봤던 소재의 품질을 평가하는 실험이나, 분석하는 작업을 실험실에서 약 10-15개의 기구들로 실험을 진행했었고, 약 50개의 소재 종류별로 분류된 소재 스와치책을 교과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수업인 브랜딩 수업에서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컬렉션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며,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었고, 어도비는 학기 중에 무료 제공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벤더나 텍스타일 회사에 현장체험학습, 다양한 과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었어요.

방학기간

방학은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 1년간 교환학생을 가 있으면서 샌프란시스코, LA, 애리조나(그랜드캐니언), 라스베이가스, 마이애미,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보스턴, 나이아가라, 버팔로, 그리고 캐나다(퀘벡, 몬트리올, 토론토)을 여행했는데 전부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초반에는 같이 간 한국친구들이랑 많이 다니다가 후에는 친해진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랑 두박이 여행도 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로드트립도 다녀왔어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주말 여행으로 15만원 정도의 가격에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도 다녀오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장주은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19 사진영상미디어학과
파견시기	2022 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WISCONSIN STOUT
국가	USA
보고서 제출일	2023년 8월 8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UWS는 미국 Wisconsin주의 Menomonie의 작은 동네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위스콘신 스타우트의 대학교 수업은 폴리텍 대학인 만큼 다양한 전공의 수업과 교양들이 많아 흥미로운 수업들을 골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강신청할 때에나 국제 학생 담당인 다니엘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니, 도전하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공인 사진/영상 수업도 2학기 동안 들으면서 스타우트의 사진교수님들과도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예술대학도 많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기초 수업을 들었습니다. 실습 위주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과정을 영어로 배우고 실습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크리틱을 나누는 시간에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형 수업도 영어에 많은 도움이 될테지만, 저는 실습 참여형 수업으로 말하는 기회를 많이 잡아 용기를 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파견기간이 두 학기였고 8월말부터 5월초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겨울이 길고 추운 동네입니다. 너무 추운 기간이 길어, 날씨 좋은 하루하루를 더욱더 의미있고 소중한게 보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추억이 있지만 학기가 딱 끝나가는 4~5월의 날씨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부터 해서 모든 국제학생들은 기숙사도 같은 층에 나눠쓰게 되어 미국학생들 보다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국제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으로 친해지고 많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들끼리의 커뮤니티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울릴 수 있는 무리가 쉽게 생성되어서 영어를 하며 대화를 하거나, 학교 생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학교에는 정말 많은 행사들이 매주 열립니다. 특히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적다 보니 학교 안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빙고를 한다던가 춤을 출수 있는 파티가 열린다거나, 만들기 체험, 스포츠 관람,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행사 등 학교내에서도 정말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이벤트를 쉽게 확인 해볼 수 있기에 평일 저녁에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 일을 시작해 빠르게 적응을 해서 일주일에 15시간정도는 일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문을 받아 샌드위치를 만들어 준다던가, 햄버거를 만들고 스타벅스 커피를 만들어주는 등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짧게 나누며 일을 한다는 것도 또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학생들도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일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은 교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기에 학교 카페테리아를 이용해서 달라 돈도 벌고, 영어도 하면서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결국에 교환학생의 최대 장점은 영어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해외파견교인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어 수업은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차차 귀가 트이고,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게 막혔지만 점차 말하기 능력이 올라가면서 대화가 가능해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낯

선 곳에서의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 그때에도 앞으로 저에게 정말 큰 메리트가 될 것을 알기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환학생을 가게 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미국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기억될 만한 추억으로 다 남겨오시길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최경원
학번(연도만) 및 전공	
파견시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Wisconsin Stout
국가	U.S.
보고서 제출일	2023년 8월 7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내용

간략히 말하자면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매우 추천합니다. 또한 위스콘신 스타우트 학교도 매우 추천합니다. 작은 마을에 있어서 평화롭고 자연과 꽤 가까운 곳입니다. 번화가는 거리가 있지만 친구를 사귀면 놀러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거나 마을 내에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 그리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교환학생은 22살이상일 때 가는 걸 추천합니다. 어느정도 여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또 경험하기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보통 동네에서 놀게 되는데 주로 bar에 가기 때문입니다.

토플 준비는 신청하기 1년 전 최소 6개월 전에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장학교환학생이라는 기회도 있지만 가격차이가 크고 토플점수 신청기준에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어에서도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플점수가 낮아서 1학기 어학연수, 2학기 장학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어학연수기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은 맞지만 교환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충분한 영어실력이 필요합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하.

또한 돈을 어느정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을 간다면 무조건 여행도 곁들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비 뿐만아니라 여행경비, 쇼핑경비 등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듭니다. 학비는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은 교환학생합격하고 나서부터라도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환학생기간을 1년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본인은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고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학교에 가보면 똑같이 교환학생으로 왔어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2년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친해져서 계속 같이 놀기도 하고 중간에 온 친구들과 새로 친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번 가는 김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오자 싶어서 1년 신청했습니다. 저는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두번째 학기 때 친해진 친구들과 여러 방법으로 놀았습니다. 첫 학기는 적응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여러 이벤트 참여하고, 그 다음학기에는 친구들과 학교동네 밖까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학교시설을 더 잘 이용하고 다양하게 놀았습니다.)

만약 그냥 해외여행도 할 겸 외국친구도 만들 겸 간단히 다녀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방학단기해외연수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시간이 많이 없는데 교환학생으로 다녀오고 싶으신 분들은 한 학기 추천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엔 봄학기보다는 가을학기에 더 다양한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 나라에 공휴일, 이벤트, 날씨 등을 확인하시고 봄/가을 중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에도, 영어에 익숙해지기도, 문화를 알아가기도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도 한국보다 높았고 그저 경험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 할 수 있어서 일상에 지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학비에 용돈별이가 되어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가실 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짐에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샴푸, 바디워시, 치약 등은 가서 마련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옷 또한 많이 챙겨봤자 옮기기에 무겁고 돌아갈 때 챙기기에 버겁습니다. 버리고 올 옷들을 위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 하면서 무조건 짐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융통성 있게 챙기시길!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잘 꾸미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캐주얼 의류이고 주로 적은 갯수로 돌려입습니다. 더이상 못 참겠다 싶을 때 그때가서 몇 벌 새로 사면 됩니다.

교환학생에 간 후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값진 경험이 미래 어떤 일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힘들 때 일어설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기던 사진이던 최대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나라
학번(연도만) 및 전공	20학번 융합경영학과
파견시기	2022 학년도 하계방학 동계방학 2학기부터 익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비아시아권 교환학생(학기 중) 단기언어문화연수(방학 중)
자매교명	Angelo State University
국가	미국
보고서 제출일	2023 년 7 월 2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p> <p>(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p> <p>(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p> <p>(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진 첨부 가능) 본 자료는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학생에게 공개됩니다. 이탤릭체로 작성된 안내 내용은 제출 시 삭제해 주시고, 이하 내용 작성 시 폰트 형식이나 크기는 변경하지 않아 주세요. 작성된 자료는 <https://goo.gl/BLPVRK> 로 업로드 바랍니다.]

내용

저는 ASU 에서 1년간 교환학생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타학교에서도 교환학생이 정말 많이 오고, 한국인이 많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인학생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향후 opt 비자를 취득하여 (1년시에만 가능) 미국 인턴생활도 가능합니다. asu내의 국제학생센터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하십니다. 저는 졸업때문에 바로 돌아왔지만 다른학교의 1년교환학생들은 휴학후 모두 미국인턴으로 취업했습니다. 한국에서 따기 어려운 미국 취업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상명대보다 월등히 커서 좋았습니다(하지만 미국학교중에서는 조금 작다고 생각함) 또한 헬스장도 엄청크고, 수영장 및 클라이밍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8월은 미국 학교 입학 및 1학기 시작이라, 신입생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다른 교환학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기숙사]

ASU의 텍산홀, 메리메시홀, 벤더벤티, 센테니얼빌리지 이렇게 4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비싼 텍산홀은 제가 살던 곳인데, 각방2인실에 부엌(취사X)과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기숙사 중 가장 프라이빗한 곳이고 경영건물, 카프(뷔페식 학식)과 가깝습니다.

메리메시홀은 그냥 한국의 기숙사처럼 방 한곳에서 두명이 사는곳이고, 벤더벤티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합니다. 부엌이 있는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센테니얼 빌리지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로 깨끗합니다. 4인실과 2인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건물과 매우 멀며, 서브웨이, 칩필레, 타코 등 식당 건물과 가깝습니다.

[수강신청]

처음 파견되기 전에는 ASU의 한인 교수님께서 수강신청을 대신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학기에서는 제 스스로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상명대 수강신청보다는 매우 수월했습니다. 미국은 학년별로 수강신청 기간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수과목이 필요한 과목이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각종행사,동아리]

8월에 학교에 가게되면, 개강 전 3일동안 신입환영회 같은 파티를 합니다. 파우더볼을 던지면서 놀기, 물총쏘기, 헤드셋끼고 춤추기 등 친구들을 사귀기 좋은 행사가 많이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 한인학회에서도 많은 행사를 했었는데, 케이팝콘서트와 한글날행사, 튜터링 등 재미있는 행사가 많았고 저는 튜터링을 통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친해져서 한국에 온 지금까지도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학교홈페이지 내에 검색하면 정말 수많은 동아리들이 나옵니다. 저는 초반에 한인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탈퇴했었고, asu Sorority(여학생동아리)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아서 하는것도 미국에서의 경험 쌓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SAP 참여 보고서

성명	이정민
학번(연도만) 및 전공	19학번 사진영상콘텐츠
파견시기	2022학년도 2학기부터 2023학년도 1학기까지
참가 프로그램명	교환학생(학기 중)
자매교명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Uclan)
국가	영국
보고서 제출일	2023년 7월 29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에 대한 동의	<p>본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1)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후기 수집 및 공개용 (2) 수집항목: 성명, 학번(연도만), 전공, 프로그램, 파견시기 (3) 보유/이용기간: 파기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거부 가능하며, 거부 시 학점인정 불가 및 장학금 환수</p>

내용

1. Uclan과 Preston

제가 파견 된 학교는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Preston 이라는 도시의 Uclan이라는 학교였습니다. 학교 건물, 학생 기숙사들이 한 곳에 붙어 있진 않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퍼져 있어서 그 부근은 학생타운 같은 느낌입니다. 식당들과 Tesco, Nisa, Aldi가 그 근방에 있고, 기숙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5분 내외 거리에 city centre와 Preston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로 갈 만한 유명 근교로는 Liverpool, Leeds, Manchester, York, Edinburgh 등이 있습니다.

2. 수업

Uclan에는 다양한 수업이 있지만 저는 전공 인정을 받기 위해 제 과에 맞는 미디어, 영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각본, 프로덕션1 등과 같은 수업 들이었는데 대부분 다 1학년 수업이었고(몇 개는 2학년 수업), 보통 1명~5명 이상의 교환학생이 수업에 있었기 때문에 큰 어색함이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3. 기숙사

저는 iQ Kopa 라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큰 입구 안에 블락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작은 오피스텔 단지같은 느낌입니다. 스태프들이 친절하고 시설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iQ는 6명에서 부엌만 공동으로 쓰고 각자 개인방에 화장실이 딸려있습니다. 플랫 선택 시 only female, mixed sex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전 only female을 골랐었는데 일본 3명, 한국 2명, 독일 1명 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친구들 중 2명이 처음부터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서 총 8명에 남자 두명 섞인 플랫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서 오히려 더 재밌었습니다.

4. 친구

Uclan에서 특히 초반에 교환학생 웰커밍 파티, 버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줍니다. (학교 이메일 잘 참고). 또 K society나 J society 같은 소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관심 많은 학생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환학생 친구들이 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친구도 사귀고 재밌는 시간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참여를 안했지만, 플랫 애들이랑 부엌에서 놀거나 수업에서 만난 같은 교환학생이랑 떠들면서 친해지거나, 그 친구의 친구와 또 친해지는 식으로 친구를 사겼습니다.

5. 영어

영국은 IELTS를 보지만 보통 토플도 아이엘츠 환산점수로 인정해줍니다. 토플기준 지원 가능 점수는 평균 80 이상 각 영역 20 이상입니다. (영역 중 20이 넘지 않는 게 있더라도 평균 점

수가 높으면 봐줄 수도 있긴 합니다.) 저는 영어권 문화를 그동안 한국 문화만큼 즐겨왔던 편이라 영어에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피킹은 지금도 많이 어버버대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글로벌 언어인 만큼 틀리는 게 많아도 애들이 잘 알아들어줍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들어야지 엉터리 영어라도 내뱉기 때문에 영어로 듣는 것에 익숙해져 오시길 추천합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 외에 영어권 릴스, 틱톡, 유튜브, 넷플릭스의 등의 콘텐츠를 많이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6. 영국 문화

저는 영국 자체에 대한 공부는 거의 안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불편함이 없었긴 한데 확실히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은 적어보겠습니다.

Alright의 빈번한 사용

Ex) 마트 계산대

점원: Hi, you alright?

나: Yeah I'm alright, thanks.

점원: Do you need a bag?

나: No, I'm alright.

점원: Cash or card?

나: Card please.

점원: Do you need the receipt?

나: Yes please.

나: (영수증을 받고) Thanks.

점원: Thank you, see you later. (혹은 Have a nice day)

나: See ya. (You too)

돈쓰는 법

하나 viva카드 가져와서 썼는데 결제 오류도 가끔 났고 ATM에서 현금도 안 뽑혔습니다. 대신 monzo같은 인터넷 뱅킹으로 영국계좌 열어서 거기 카드를 쓰면 거의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해외송금은 모인이라는 앱을 쓰면 됩니다.

슈퍼마켓

Aldi, Tesco, Sainsbury, Mark & Spenser, Morrisons 중 Aldi 가 제일 싸고 Mark & Spenser가 가장 비쌉니다. Tesco는 club card를 만들어 클럽카드 할인 품목을 사면 쌉니다.

외국의 쿠팡 아마존

-아마존프라임이 학생은 9개월 무료입니다.

-반품은 아마존에서 반품 신청 한 후 nisa 같이 반품 서비스하는 곳에서 반품지 프린트한 다음 붙이고 맡기면 됩니다.(아마존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통 이런 식으로 반품)

수업 분위기

-학생들이 출석에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게 입고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친한 애들도 각자 쿨하게 갈 길 가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친구를 사귀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날씨

비가 추적추적 자주 왔다가 그치니 우산보다 후드 달린 옷을 입고 쓰고벗었다 하면 편합니다.

할말도 더 많고 사진도 많은데 지금 사진 있는 하드디스크가 데이터 복구 수리중에 있어서 못 올리네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lijeongmin@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